

해외전력정보

Lightway(중국)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중국의 태양광발전 개발기업인 Lightway Solar는 총사업비 1억 8,500만 불을 투자하여 루마니아 Prundu지역 내에 5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되어 직원 3,000명을 보유한 Lightway사는 유럽에너지 부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의 에너지 및 공공설비 인프라 부문은 2012년 이후 3.4%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1년 14.9% 하락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동 부문이 2013~2022년까지 평균 3.2%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부문 역시 에너지 및 공공설비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작년과 올해의 예상 실질 성장률이 각각 4.8%와 3.8%를 기록하며, 2022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을 전망하였다.

발전소와 송전은 전체 에너지 및 공공설비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금년 전체 중 64.3%를 점유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2022년까지 연평균 65.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출처 : BMI(2013. 5. 9)

NTPC, 화력발전소 2기 건설 추진계획

인도 국영화력발전공사(National Thermal Power Corp, NTPC)가 방글라데시에 총 사업비 17억 불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발전소 2기의 총 규모는 1,320MW로 NTPC는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와 합작으로 3년 내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두 국영기업은 지난 주 협정서에 서명했으며, 그 내용에는 인도회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료로 사용될 석탄을 수입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금년 7월부터 4개월 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전력부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4월에서 10월까지 날씨가 더워지는 기간에는 공장가동을 수시로 멈춰야 할 정도로 전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Asian Power(2013. 5. 8)



쿠웨이트, 에너지 부문 발전 퇴보

최근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KNPC) 고위급 인사 경질은 정부 에너지 부문 퇴보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쿠웨이트는 다량의 오일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시설 노후화로 인해 생산량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07년 이후 국회가 10번이나 해체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은 수십억 불의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을 방

해하며, 자원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제안과정이 까다롭고 장시간이 걸리는 점은 발전 및 석유관련 사업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정부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오일 & 발전부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으나, 인프라시설 개선사업에 막혀 있어 별도로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 MEED(2013. 5. 23)